

# 울림과 잠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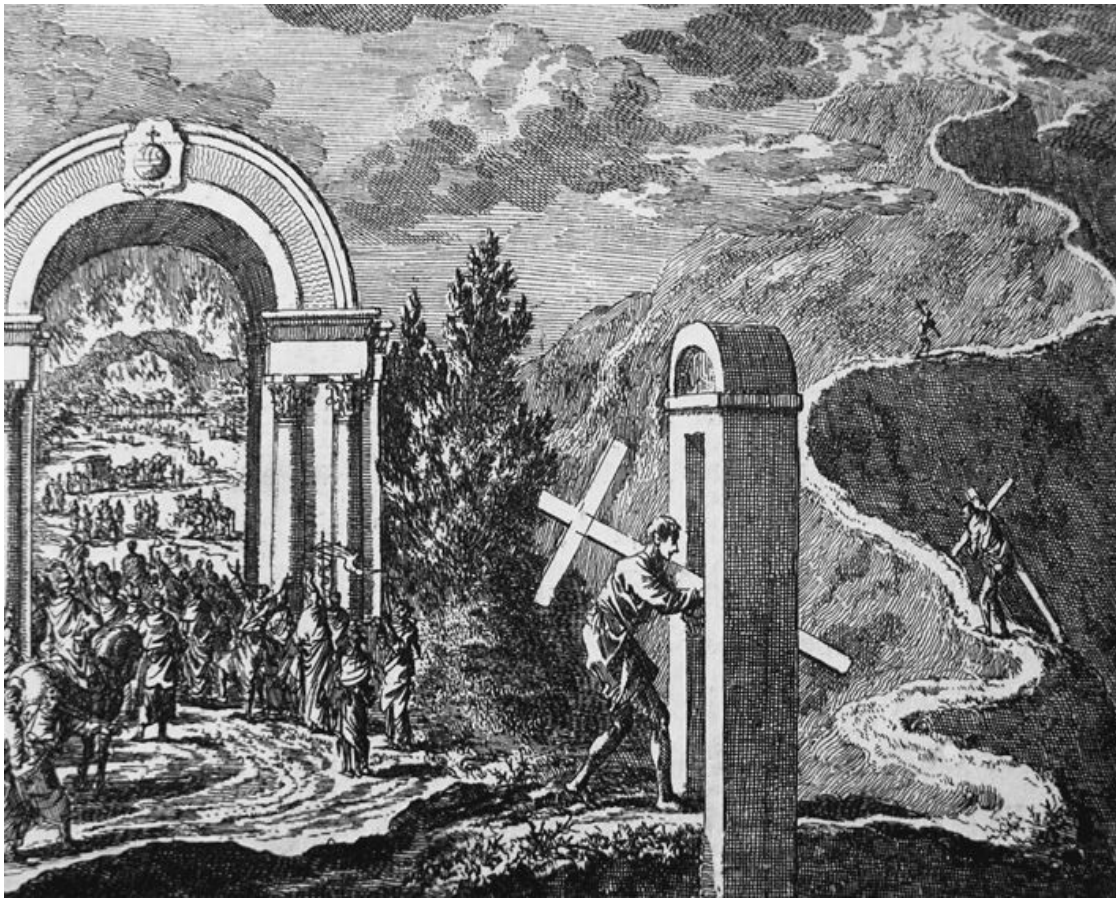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 연중 제21주일 (2025년 8월 24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루카 13,24)



The Wide Road and the Narrow Road, Jan Luyken, Etching, 1712  
Rijksmuseum, Amsterdam

얀 뤼켄 (Jan Luyken, 1649-1712)은 네델란드의 판화가이자 시인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에칭 판화중 하나로서 화면 왼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멸망의 불길로 이어지는 큰 문과 넓은 길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좁은 문과 좁은 길, 곧, 하늘 나라로 이어지는 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풀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풀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루카 13,30)



## 1. 시작 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당신의 교회를 살피시는 하느님 아버지,  
본당 설정 50주년을 맞는 저희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축복을 내리소서.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 성당, 저희 공동체는 미국이라는 이국땅에서 가톨릭 한인 공동체를 꾸려 왔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공동체의 신앙과 사랑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우면서  
공동체를 꾸려 왔습니다. 50주년을 맞은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 때 세상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해주시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저희는 한인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한국 순교자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가꾸어 왔습니다.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강인한 순교 영성은 이국땅에서 저희들의 삶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강인함을 본받아 저희는 공동체를 잘 지키고 가꾸었고,  
앞으로도 그 모습을 이어가겠다고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시간 함께 다짐해 봅니다.

주님, 사랑과 일치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아가려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식탁에서 받은 사명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성찬의 식탁에서 받은 은총을 가난한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가정에도 항상 함께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성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저희 본당 모든 교우들이 영원한 생명에도 함께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시작 성가로, 가톨릭 성가 16번 “온세상이 주님을”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SCAN ME

### 온 세상이 주님을

보통 빠르기로

Lucien Deiss



온 세 상 아 주 - 님 을 찬 미 하 여 라



D.C.

- |            |         |           |         |
|------------|---------|-----------|---------|
| 1. 온 누 리 여 | 야 웨 님 께 | 찬 미 의 노 래 | 드 - 러 라 |
| 2. 은 총 으 로 | 오 시 는 주 | 우 리 의 구 원 | 되 - 도 다 |
| 3. 하 느 님 은 | 아 비 지 요 | 우 리 는 그 의 | 자 - 녀 라 |
| 4. 만 민 들 아 | 그 은 혜 를 | 영 원 히 감 사 | 하 - 여 라 |

##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루카 13,22-30)

그때에 22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23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6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7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28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29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30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그에게 자비를 베푸 사람입니다.” (루카 10,37)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앎’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작은 것부터 이웃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A2]
-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이웃의 작은 어려움이라도 살피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AA2]
-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루카 10,27) 말씀으로 기도하며, 일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나누며 살아야겠습니다. [CT]
-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루카 10,33) 말씀으로 기도하며, 가까운 이웃의 불행과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가엾은 마음 없이 그들을 바라본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던 지난 삶으로부터 자비심을 회복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CT]
-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루카 10,25) 올해 10월이면 제가 미국에 온지 9년차가 됩니다. 처음 미국땅을 밟았을 때는 너무 좋았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불만이 생겼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런 불만이 늘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를 감사기도로 바꾸게 되면서부터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만을 없애고 주어진 제 삶에 대해 감사하라는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RC2]
-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루카 10,27) 말씀으로 기도하며, 저도 ‘사마리아인 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일에 개입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려고 하다보니 성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교를 하거나 힘든 고통중에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RC2]
- “그러면 네가 살것이다.” (루카 10,28) 말씀으로 기도하며, 관계속에서 받은 상처로 몇주간 힘들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 노력으로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단절하고 싶었지만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인지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미움의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며 이해하고 기다리면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RC2]
-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루카 10,33) 살다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엾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가엾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허락해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는 하느님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도록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RC2]

-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 16,13)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믿음으로서 절대 진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주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TR3]
- “희망을 사랑으로 여깁니다.” (로마 5,2) 말씀으로 기도하며,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사랑으로 여긴다는 것이 좋습니다. [TR3]
- “우리가 받은 성령” (로마 5,5)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이 경이롭게 다가왔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받은 하느님의 사랑이 참 좋습니다. [TR3]
-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5,5)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미 제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TR3]

##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 셀라책 307번 ‘주님을 찬양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307

## 주님을 찬양해

Fr.이 철



1. 언 제 나 어 디 서 나 기 뻘 게 주 님 을 노 래 불 러 요 주  
2. 주 님 을 향 해 가 는 맘 으 로 감 사 의 찬 양 드 리 세 그



님 의 크 신 사 랑 느 끼 며 다 함 께 노 래 불 러 요  
크 신 주 의 사 랑 놀 라 워 나 향 상 주 님 찬 양 해



주 님 찬 - 양 할 때 모 두 가 하 - 나 되 리 주 께 서 - 함 께 하 시 기 - 때 문 에



주 의 사 랑 주 의 평 화 내 마 음 - 속 에 흘 러 님 - 치 도 록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봉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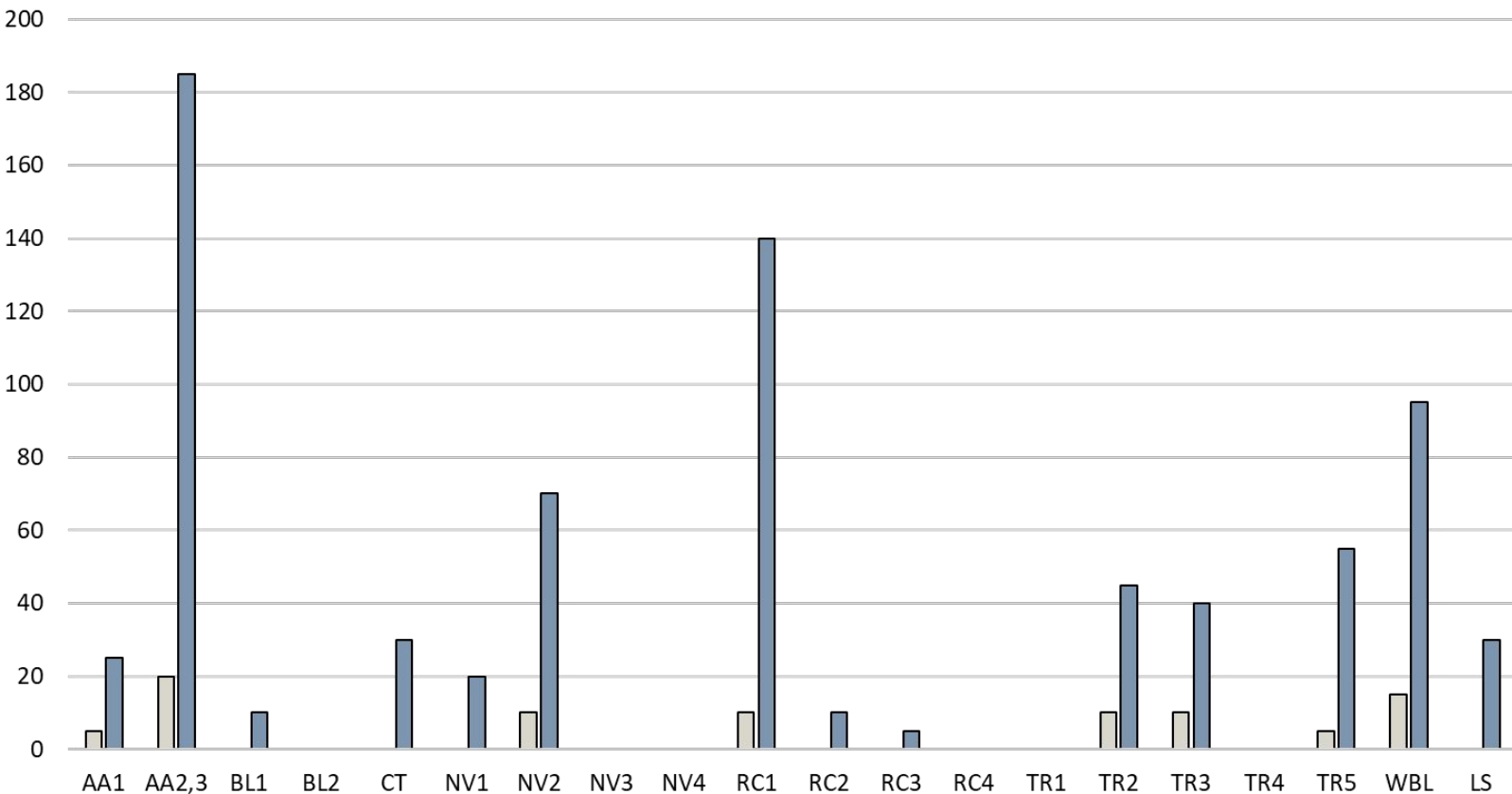
|              | 미사봉헌        | 목주기도<br>(단)  | 본당50주년<br>기념기도문 | 영적묵상<br>(시간) | 화살기도        | 사제를<br>위한 기도 | 수도자를<br>위한 기도 | 선행         |
|--------------|-------------|--------------|-----------------|--------------|-------------|--------------|---------------|------------|
| JUL 2025     | 84          | 3035         | 100             | 37           | 122         | 123          | 84            | 48         |
| <b>TOTAL</b> | <b>1084</b> | <b>25579</b> | <b>1654</b>     | <b>358</b>   | <b>2098</b> | <b>1506</b>  | <b>1339</b>   | <b>393</b> |



## 2025 성경공부 및 성경잔치 역사서 말씀과 함께

### 반별 숙제 제출 현황

● 에즈라기  
● 누적



매달 통독 분량을 공부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개인별로 제출하시면 반별로 취합하여  
숙제 한 건당 5점씩 반별점수로 11월에 열리는 성경잔치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정해진 양식의 종으로 제출하시는 경우 사무실 교육부 트레이로, 파일로 제출하시는 경우  
홍세훈 교육부장 이메일(sehoon9224@gmail.com)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 2025 성경 공부

## 에즈라기 말씀과 함께

에즈라기는 기원전 538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귀향한 뒤 약 한 세기 동안 벌어진 사건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후 사제 에즈라가 중심이 되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에즈라기의 중심 관심사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유배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유배로 인해 중단되었던 하느님과의 예배(경신례)를 회복하고,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라기는 예루살렘 성전 복구가 유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첫 사명이자 과제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키루스 왕의 칙령에서도 귀향의 목적은 성전 재건에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에즈 2장).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된 순간, 에즈라기는 그것을 단지 인간의 업적이 아닌 하느님의 역사(작품)로 고백하며 큰 기쁨으로 이를 기립합니다(에즈 6,22).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율법의 준수가 그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글 | 진순미 보나

바빌론 유배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위한 재건의 구심점을 마련해주기 위해 제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치적인 방법이 아닌 종교적인 방법을 이용했다는 점을 배우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민족이 유대인들 만큼 긴 식민지 생활을 했었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선 공감할 수 있지만, 원래 모세오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타민족과의 결혼을 중심으로, 어찌보면 원래의 율법을 왜곡하는 오류를 무릅쓰고 민족의 단일화와 결속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하느님을 잘 믿고 따랐다고보다는 하느님을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 이용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대 상황하에서 그 방법을 택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거세게 비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고수하며 이천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면과 그로 인해 지금의 이스라엘도 주변 이웃 국가에 거침없는 무력을 행사하며 공존을 모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부정적인 면을 볼 때, 하느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도 다른 모든 세상 일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들이 공존한다는 상식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한 인간들의 행동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는지, 인간들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두고 보시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는 일들도 항상 살피면서 조심한 마음으로 곱씹어가며 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 글 | 백종석 마카리오

에즈라기는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민족을 재건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빌론에서 유배를 살던 가장 암울했을 시기에 율법학자들이 대부분의 구약성경의 본문을 완성하고 창세기 창조 설화를 탄생시켰으며, 유대교의 기반을 이때 다졌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신앙을 재건해야 한다는 사명을 안고 돌아왔던 첫번째 이스라엘 유배민들은 녹록치 않은 많은 현실의 장애들과 부딪혔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민족들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옛자리에 조그맣게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맘아픈 일은 유배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졌던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꿈을 안고 돌아온 고향은 황폐한 무법지대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율법을 기반으로 하는 순수한 신앙으로 되돌아가려는 치열한 노력은 에즈라의 기도와 뒤이은 이민족 아내들의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전에 구약성경을 대할 때 저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가족과 생이별하게 하는 이 결단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같은 질문으로 구약을 읽기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금 바뀐 것이 있다면 구약은 역사적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응답하는 책이 아닐까 하는 이해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 글 | 지연희 스텔라

7월에는 구약성서 중 '지혜의 여정'으로 불리는 열다섯 번째 책, 에즈라기를 통독했습니다. 이 책은 바빌론 유배가 끝날 무렵 기록된 역사서로, 율법학자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율법과 성전 재건을 위해 이끈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약 시대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 하나의 중요한 단면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에즈라기의 분량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민족 아내들과 자녀들을 떠나보냈다는, 아니 어쩌면 쫓아내고 버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를 내용입니다. 더러는 그 의견에 불복한 자들도 있었다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결정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민족 여성들이 잘못된 것이 아닐 텐데, 오히려 그들과 혼인한 유배자들의 책임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율법과 법규들을 일깨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였겠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 속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인간적인 갈등과 아쉬움을 동반한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글 | 고정민 엘리사벳

에즈라기를 공부하며, 특히 1-6장의 성전 복구 과정을 읽으며 50년 전 저희 공동체의 성전 건립 과정을 연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모시고 온전히 의지하며 이민자의 삶의 역경을 저희 힘이 아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헤쳐 나가고자 하는 공동체 어르신들의 의지가 담긴 곳이라고 생각하니 숙연해졌습니다.

평소에 그냥 찾던 저희 성당이 에즈라기를 공부하며 이곳이 '거룩한 성소'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더 정성된 마음으로 이곳을 잘 지키고, 이젠 건물만이 '성전'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깃든 '성전'이 되도록 마음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 글 | 최승원 엘리사벳

에즈라기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의 저를 만나 봅니다.

혈연을 갈라놓으시면서까지 그토록 당신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어느새 당신 대신에 저의 삶에 중요하게 자리잡은 저의 자녀를 향한 마음과 자녀를 위해 제가 구하고 찾는 모든 것이 저의 헛된 우상이라고 고백해 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저의 자녀를 당신 위에 두지 않고, 저에게 잠시 맡겨진 당신 선물임을 되새기며 겸허히 소중한 당신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글 | 유명미 율리아

성당의 중심이 제대이듯 주님을 생각하고 따르는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제 안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글 | 왕승진 유스티노

남유다마저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내어주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0여년의 유배 생활을 하던 중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 일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속국으로 삼고 있는, 그 당시 엄청나게 크고 강한 제국 페르시아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당신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겠다 싶은 순간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은총을 깊이 되새기고 다시 하느님을 찾으려고 애썼기에 하느님께서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에즈라를 보내시어 당신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며 깨어 있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일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유난히 덥고 습했던 여름날 저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강렬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특별한 친분이 있거나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도 아니고 성가대 경험도 없었던 반원들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합지졸을 이끌어 주실 인물을 보내 주시어 아름다운 성가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글 | 박소연 세실리아

# 21세기 첫 성인, 카를로 아쿠티스 (Carlo Acutis) 9월 7일 시성식

## - 현대 사회 속 '성덕'의 길을 증거한 디지털 복음 선포자 -

카를로 아쿠티스는 현대 사회 속에서 '성덕'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한 인물로, 21세기에 선종한 첫 성인입니다. 그의 삶과 시성과정,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누구보다 깊이 하느님을 사랑한 자

1991년 영국 런던에서 이탈리아인 부모 사이에 태어나 세례를 받은 카를로 아쿠티스는 어린 시절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주해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곱 살에 **"항상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제 삶의 계획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깊은 신앙심을 지녔고, 같은 나이에 첫영성체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성체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묵주 기도와 성체 조배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햇볕 앞에 서면 햇볕에 그을리지만, 성체 앞에 서면 성인이 됩니다."**라며, 성체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성덕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 우상 앞에서도 그는 세상을 거슬러 나아가는 용기와 굳건함, 그리고 주님의 현존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그는 성찬례에서 배운 신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 디지털 시대의 복음 선포자

아쿠티스는 학생이자 아들로서의 본분을 다함과 동시에, 신앙과 IT를 결합하여 본당과 학교, 학술기관의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성체 기적을 정리한 온라인 전시를 기획하는 등 디지털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첫영성체와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가난한 이웃을 돕고,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친절な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는 축구와 비디오 게임, 범죄 영화, 동물, 색소폰 연주 등을 좋아하며 또래들과 같은 일상을 살았지만, 모든 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살아있는 복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 15년의 짧은 생애, 그러나 영원을 향한 깊은 사랑

2006년 아쿠티스는 급성 백혈병으로 15세의 나이에 선종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성덕'이란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내가 아니라 신께, 자기애가 아니라 신의 영광에, 슬픔은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고, 행복은 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 시성 승인 - 두 번의 기적, 우리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온 성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아쿠티스의 중보기도로 인한 두 건의 기적을 인정하시며, 그의 시성을 공식 승인하셨습니다:

- (1) 2013년, 췌장의 선천성 기형으로 식사를 할 수 없던 브라질의 마테우스 소년이 아쿠티스의 티셔츠 유품을 접하고 기도한 뒤 완치
- (2) 2022년, 자전거 사고로 뇌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코스타리카 여성의 어머니가 아시시의 아쿠티스 무덤에서 기도한 직후 회복

이제 그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위해 전구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과 같은 일상을 살면서 '성덕'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노력했던 아쿠티스, 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삶이 빛과 희망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도 작은 사랑과 일상 속의 성실함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